

## 국비 지원 한 푼 없는 ‘초라한 10주년’

### 숨죽인 ‘지역 자산’ 다시 깨우자

② 여수세계박람회장  
(상) 현황과 실태

2012년 세계인 사로잡은 세계박람회장 황폐화  
만성적자 주요시설 운영 중단...세금도 못낼 판  
여수프로젝트 등 박람회 정신·유산 계승 울스톱

새해 첫 주말인 지난 8일 찾은 여수세계박람회장은 쓸쓸하기 짝이 없었다. 주말임에도 주차장은 행하니 비어있었고, 간간히 오가는 관광객들만 눈에 띄었다. 박람회장 내 주요 시설 중 하나인 국제관에서는 생동감은 눈썰매장과 눈꽃마을 행사가 진행중이었지만, 이용객은 2-3명에 그쳤다. 주변에 설치된 체험·판매 부스와 등성등성 자리잡고 있는 식당·상가들도 커피숍과 편의점만 문을 열었을 뿐 대부분 문을 닫거나 점포를 비운 상태였다. 눈썰매장을 지탱하고 있는 골조들도 철골 그대로 세워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국내외 수많은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국제관 천장의 대형 스크린은 ‘춤추는 고래’ 대신 어둠만 맴돌았다.

발길을 돌려 찾은 스카이다워도 처참했다. 전망대 뒤편에 마련된 야외주차장 햇빛 가림막과 바다 나무 자재들은 부서지고 떨어져 나갔고, 운영이 중단된 파이프오르간 연주대와 오래된 매점은 폐허나 다름없었다. 또 전망대로 올라가기 전 1층에 설치된 해수담수화 시스템은 관람객들이 담수화 과정을 직접 보고 정수된 물을 체험·시음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만, 오래전 고장난 듯 방치돼 있었다. 주제관 역시 앙상한 철골들이 입구를 막아선 채 주제관으로 통하는 다리 ‘여니교’의 나무 바닥이 심각하게 파손돼 관광객들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었다.



여수세계박람회장이 운영비 부족 등으로 주요 시설물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곳곳이 부서지고 쓰레기 더미가 쌓여 흉물처럼 방치돼 있다.

2012년 당시 전 세계인의 극찬을 받았던 여수세계박람회장이 흉물처럼 방치된 이유는 뭘까. 정부와 전남도, 여수시의 무관심과 국회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의 방관 등 약재가 겹치고 겹치면서 지난 10년 간 박람회장 운영은 고사하고 여수박람회가 남긴 유산들마저 철저히 잊히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이 나온다.

◆현황= 여수시 덕충동 일원에 조성된 세계박람회장의 총면적은 271만㎡에 이른다. 이중 전시 구역은 25만㎡이며, 나머지 246만㎡는 종사자 숙박 시설, 환승 주차장, 공원 녹지 등으로 구성됐다.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조성하는 데 소요된 사업비는 엑스포타운 등을 포함해 2조1,000억원에 달했다. 박람회장은 크게 주제관, 국제관, 한국관,

아쿠아리움, 스카이다워, 빅오, 엑스포디지털갤러리, 부제관 등으로 조성됐다. 각 시설에는 현재 예부제예당홀, 호텔 다락휴, 카페, 음식점 등 32곳이 임대로 들어가 있다. 박람회장 방문객 수는 2013년 190만명에서 2019년 355만명으로 최고점을 찍었고, 2021년 297만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10년간 뭘했나= 전남도와 여수시,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은 박람회 개최 이후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여수박람회법)’을 바탕으로 여러 사업을 구상했다. 여수프로젝트 추진, 기념·체험관 조성, 해양과학관 운영 등이 대표적이지만, 10년이 흐른 지금 딱히 내세울 성과는 없다. 우선 박람회장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시설은 만성적자로 유지조차 버거운 형편이다. 박람회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한해 100억원가량. 하지만 자체 수입은 연간 65억여원에 그치고 있고, 국비 지원은 쥐꼬리 수준이다. 지난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각종 회의 등이 크게 위축되면서 임대료를 비롯한 운영수입도 2019년 76억원의 절반인 47억원으로 떨어졌다.

이에 반해 정부 출연금은 2014년 60억원에서 매년 10억원씩 줄어 2020년 9억원, 지난해 7억원으로 떨어졌다. 이마저도 2018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않아 쪽지예산으로 근근이 충당해 오다 올해부터는 아예 지원금이 끊겼다. 이 때문에 시설 보수는커녕 세금조차 제대로 납부할 수 없는 궁색한 지경에까지 몰린 상황이다. ▶2면으로 이어짐 /임채민 기자

## 이용섭 시장, 붕괴현장 상주 24시간 수색·구조 ‘안간힘’

사고 1시간 만 도착...대책본부 지휘·실종자 가족 소통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11일 발생한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서 24시간 상주하며 사고수습과 실종자 수색·구조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11일부터 8일째 현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사고 관련 모든 일정을 지휘·통제하는 등 컨트론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직접 실종자 수색·구조작업을 총괄하는 한편, 실종자 가족들과 상시 소통하고 소방구조단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11일 오후 3시 47분께 사고 발생 신고접수 후 1시간 만인 오후 4시 40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인명피해 여부를 확인한 이 시장은 곧바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명령을 내리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했다. 이튿날부터는 매일 오전 8시에 서구·소방·경찰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현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실종자 수색과 사고수습본부 설치, 현대산업개발 공사중지 행정명령, 사고원인 조사 등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서구청·소방본부 관계자들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을 둘러보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특히 사고현장 인근 대피 주민대표와 피해자인 대책위원회 간담회를 갖고 피해현황과 애로사항 등 민원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현장을 찾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안전 확보·구조를 위한 중장비 지원을 요청, 교부세 등 30억 원도 약속받았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에게는 책임있는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하며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다. 이 시장은 실종자 구조, 피해 가족·상인·주민 보상, 안전장치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용섭 시장은 “현장에 24시간 머물면서 수색·구조작업을 총괄하겠다”면서 “사고원인 조사는 경찰과 사법기관 등에 맡기고, 실종자 수색작업과 추가 붕괴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 광주 ‘나홀로’ 가구 20만 20년새 3배 이상 ‘경증’

광주 1인 가구가 지난 20년 사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0년 말 광주 1인 가구는 19만 3,948가구로 전체 가구의 32.4%를 차지, 전국 평균(31.7%)을 웃돌았다. 2000년 광주 1인 가구는 6만 207가구(전체 가구의 14.7%)로, 20년 만에 가구 수는 3.2배가 됐으며 전체 가구 증가치에 미치는 비율은 17.7%포인트 높아졌다. 광주시는 1인 가구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10월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에는 실태 조사 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53억 원), 1인 가구 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195억 원), 여성 범죄예방 취약가구 지원(8,000만 원) 등 사업을 추진한다. /오선우 기자

# Sulwhasoo

설화수 자음생크림  
6,000배\* 고농축 진세노믹스™의 힘으로  
탄력의 시간을 무한하게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복잡한 피부 속을 바로 잡으세요  
강력한 인삼에너지를 6,000배\* 이상 고농축한 진세노믹스™,  
피부 한 층 한 층 채우고, 세우고, 당기고\*\*, 탄력을 끝까지 붙잡아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탄탄해진 피부를 경험하세요

NEW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CREME RESURGENTE

\*진짜인삼 사용인 SK형량 비교 \*\*피부탄력 +12.3%, 탄력 +22.2%, 주름 25.9% 인자력을 상할 결과(4주 후 사용 결과) 대상: 30~60세, 31명 / 시험기관: 피부평가(비평가)시험연구원(비평가) 시험기간: 2021.03.09 ~ 2021.05.09 (8주)